



정읍사회복지관,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정읍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늘(향상)-잇(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동체 공간 운영과 생활행태 개선을 이루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사회적으로 고립된 130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중장년 고립 남성 가구의 식생활 지원 역할을 키우는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공동체 활동으로 참여자 간 유대감을 쌓는 '나들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반찬 쿠폰 지원' 사업은 고립된 20세대를 대상으로 주 1회 쿠폰을 지급해 외출을 유도한다.

또한 고립 가구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상시 개방하는 '공간잇기' 사업도 도입했다. 복지관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마을기업, 부산국제식품대전서 판로 개척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들이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영남권 시장 공략과 판로 확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친환경·유기농 제품, 급식 및 식품첨가, 커피·음료 등이 전시된다.

올해 행사에는 약 420개 기업이 83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국내외 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쌀강정과 한과, ABC주스 등을 생산하는 전북지역 마을기업 7개사가 참가해 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 /오상근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외식업체 2곳과 협약

남원CYA가 운영하는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결식 예방을 위해 지역 외식업체 2곳과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 흥광방점0410 전북 남원점(대표 박미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28일에는 대박마라탕 남원점(대표 김은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급식 지원 및 식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루프탑 재즈 페스티벌 성황

한옥마을 야경 속 재즈 선율... '재즈 앳 더 뱅크' 관객 호응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루프탑 재즈 공연이 초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은 루프탑 재즈 페스티벌 '재즈 앳 더 뱅크(Jazz at the Bank)'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번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루프탑 공간에서 재즈 음악과 도심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특히 KBS FM '재즈수첩' 진행자이자 재즈 칼럼니스트인 황덕호가 기획과 진행을 맡아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공연 1부에서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현용선이 이끄는 '현용선 밴드'가 무대에 올라 스윙과 모던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를 선보였다. 개성 있는 사운드와 탄탄한 연주력으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내 재즈계의 대표 색소포니스트 김오기가 이끄는 '김오기 콰텟'이 무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즉흥연주와 강렬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JB문화공간은 오는 6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팔치체르를 초청해 '클래식 앳 더 뱅크(Classic at the Bank)'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JB문화공간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강동오케익, 보훈가족 위한 기부금 500만원 전달

(주)강동오케익(풍년제과) & 전주시보훈단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전주시보훈단체협의회에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이교건 전주시보훈단체협의회장, 강동호대표 및 각 보훈단체 지회장, 전주시청 및 전주시보훈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기부는 강동오 대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민간과 행정, 보훈단체가 함께 협력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장수노인복지관, 문화나눔·배움 활동 진행

장수노인복지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다함께 노년가꿈 PART2'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음식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결혼이민자 6명과 어르신 6명이 참여해 필리핀과 한국의 음식 및 생활문화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들은 김치 담그기 비법을 전수하고 직접 만든 김치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어르신과 결혼이민자 모두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 홀로그램 기업 13곳, 사업화 협약... 시장 진출 본격화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제품 제작·판로 지원 등

전북지역 홀로그램 기업들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지난 2일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의 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홀로그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포츠 동작 분석 시스템, 실감형 전시·홍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는 올해 사업이 마지막 연차에 접어들 만큼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실제 시장 적용과 사업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실증 연계, 전시·홍보, 판로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병행해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 활용 기반을 확대해 왔다.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 확산에 힘써 왔으며, 광복절과 연계한 홀로그램 상설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체험형 콘텐츠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AI와 확장현실(XR) 등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과 대형 실증사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의 최대규 센터장은 "홀로그램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AI 및 가상융합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성과 창출과 시장 진출 지원, 후속 대형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 폭염 대응 안전지킴이 활동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관) 의용소방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실군 각 읍·면 의용소방대는 2인 이상 1개조로 편성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논·밭, 비닐하우스, 작업장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 장소를 집중 순찰한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